

보도시점 2026. 6. 28.(일) 11:00 배포 2026. 6. 26.(금) 16:00
 6. 29.(월) 초간

농식품부, 농촌 빈집은행 참여 시·군 추가 모집 시작

- 빈집은행 참여 시·군 작년 21개에서 올해 32개로 확대, 1년간 45건의 거래 성사
- 광역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개최로 시·군의 빈집은행 참여 독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올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디스코, 한방 등)과 정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플랫폼에 등록하고 거래를 중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빈집을 구매·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관심 있는 지역의 빈집 정보를 그린대로 등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매물들을 비교할 수 있다.

작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농촌 빈집은행’ 참여 시·군 수는 작년 21개에서 올해 32개로 확대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약 160여 건의 매물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45건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농식품부는 빈집 매물 확대 및 빈집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참여 시·군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24일(수) 충남을 시작으로 7월 6일(월) 전북까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추가 참여 시·군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등을 거쳐 8월부터 빈집은행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빈집 소유자, 귀농귀촌인 등 수요자, 농촌 지역사회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 모집에 보다 많은 시·군이 빈집은행에 참여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 빈집은행 개요
2. 농촌 빈집은행 참여지역 현황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1541)
		담당자	사무관	김성훈 (044-201-1542)



붙임1

농촌 빈집은행 개요

< 농촌 빈집은행 개요 >

◇ ①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②빈집 정보를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매물화 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는 체계

□ 농촌빈집 실태조사

- (사업명)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 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실태조사)
- (지원내용)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23.6)을 활용, 지방정부별 관내 빈집 상세정보(빈집 등급, 건축현황, 소유자 등) 수집·분석을 지원
- 빈집여부 확인 및 노후·불량상태, 안전·위생·경관 위해요소 조사 등을 통해 빈집등급 판정, 조사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연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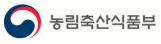
□ 농촌빈집 거래활성화

- (사업명)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 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거래활성화)
 - (지원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의사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빈집을 중개인과 매칭하여 매물화 및 플랫폼 등록 등 지원
- * ('25) 21개 시군에서 참여, ('26.6월 기준) 총 32개 시군 참여 중(추가 모집 예정)

참여 지역 현황(32개 시군)	
울산	울주군
경기	이천시
강원	평창군 / 화천군 / 홍천군 / 춘천시 / 삼척시
충북	진천군 / 충주시 / 제천시 / 옥천군
충남	서산시 / 공주시 / 예산군 / 홍성군 / 논산시 /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무안군 / 강진군 / 담양군 / 여수시 / 영암군 / 완도군 /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 진주시 / 거창군 / 의령군 / 합천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 >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

'26.4월 기준 32개 시군 참여 중(확대 예정)

